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13 호

2019 년 10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개최 (10/24)
2. 유엔글로벌콤팩트 2019/20 연회비 정책 안내

■ 본부 소식

1. UNGC 리더스 위크, 기후 위기 해소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진전 논의
2. 87 개 선도기업들,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1.5°C 기후 목표 실현 약속
3. "1.5°C 를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 보고서, 기업 리더들의 행보에 주목
 - [발간물] "1.5°C 를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 보고서
4. [유엔글로벌콤팩트-엑센추어 공동연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비즈니스 기여 궤도 벗어나
 - [발간물]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엑센추어 CEO 전략 스터디

5. 유엔글로벌콤팩트, SDGs 위한 투자 유도 위해 재무최고책임자(CFO) 네트워크 발족
6. SDG 비즈니스 포럼,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행동 촉구
7.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LEAD' 발표
8. 유엔글로벌콤팩트, 2019 SDG 선구자 발표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자투리 원단을 재활용해 만든 담요
2. [Goal 1, 7, 11]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수력원자력

■ UNGC 회원 뉴스

1. 국내 금융지주 4 개사, UN 책임은행원칙 참여
2. SKT, 국제 정상회의에서 'AI 돌봄 서비스' 등 소개
3. 제주도개발공사,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사회적 책임경영

■ CSR 뉴스

1. 文대통령 "녹색성장 경험 공유해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지원"
2. "韓 기업, SDGs 기반 비즈니스 전략 채택해야"... 장 다라공 UNOSD 원장
3. 올 ESG 채권 발행, 지난 10년치 넘었다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소식

1.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 (10/24)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초청의 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글로벌 경제의 강화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UNG)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기업들이 함께 대처해 나가며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300여 명을 초청해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합니다.

본 회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10대 원칙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한 흐름과 통찰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장소: 2019년 10월 24일 (목) 10:00-17:00 |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1F 그랜드 볼룸
 ❖ 대상·비용: 기업/기관 대표 및 임직원,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이해관계자 및 관심자 | 무료(선착순 마감)

시 간	프로그래			
10:00 - 10:15	개회사 -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축 사 - 이낙연 국무총리 (TBD) - 전국경제인연합회			
10:15 - 10:20	UNGK 한국협회 비전 영상			
10:20 - 10:40	기조 연설 1. SDGs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10:40 - 11:00	기조 연설 2. 반부패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11:00 - 11:1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그룹 위촉식			
11:10 - 11:20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참여 기업 세레모니			
11:20 - 11:40	기조 연설 3. KT의 SDGs 및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달성 노력 - 구현모 KT 사장			
11:40 - 12:00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I) 반부패 프로젝트 'Business Integrity Society' 런칭			
12:00 - 13:30	오찬			
13:30 - 14:30	특별 세션: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임투자 (좌장: 임대웅 UNEP-FI 한국대표) -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 원신보 블랙록(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Team 상무			
14:30 - 14:50	휴식 & 네트워킹			
14:50 - 16:50	분과 세션 (공동주최)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기업과 인권 (법무부)</td>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SDGs (환경부)</td>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기업의 여성역량강화</td>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통일과 SDGs (Youth Session)</td> </tr> </table>	기업과 인권 (법무부)	SDGs (환경부)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기업과 인권 (법무부)	SDGs (환경부)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통일과 SDGs (Youth Session)	
16:50 - 17:00	Wrap-up 및 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82/2149 Fax. 02-749-2148

분과세션 프로그램

분과세션 1. 기업과 인권 (공동주최: 법무부)

-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인식 제고 및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방안 모색
- 법무부의 민간부문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 소개, 국내 우수 공공기관 및 기업 사례 공유
- UNGC 한국협회에서 연구·조사한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런칭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현황 서베이 결과 공유



시 간	프로그램
14:50 - 14:55	축 사 - 법무부 인권국 황희석 국장
14:55 - 15:15	발표 1.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 마련과 확산 - 법무부 인권정책과 김수아 과장
15:15 - 15:35	발표 2. 기업과 인권 글로벌 동향 및 실사 가이드라인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15:35 - 16:05	<기업 우수 사례 공유> 발표 3. 국민연금 인권경영의 현황 및 시사점 - 국민연금공단 사회자가치실현단 양광복 부장 발표 4. 중견기업 인권 정책 및 활동 - (TBD)
16:05 - 16:5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고려대학교 경영대 문형구 교수) - 패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상임이사 BSI Group Korea 한정민 전문위원

분과세션 2. SDGs와 비즈니스 기회 (공동주최: 환경부)

- 정부의 SDGs 이행 추진 노력과 SDGs 달성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전략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SDGs를 둘러싼 비즈니스 기회 모색
- 환경부의 K-SDGs 수립 과정 및 이행 계획 소개 및 기업의 SDGs 이행 사례 공유
- UNGC 한국협회에서 실시한 코스피 100대 기업 대상 'SDGs 인식조사' 서베이 결과 공유



시 간	프로그램
14:50 - 14:55	환영사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
14:55 - 15:10	발표 1. K-SDGs 수립 과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 -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명학균 과장
15:10 - 15:25	발표 2. SDGs 인식조사 결과 공유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주임연구원
15:25 - 16:10	<기업 우수 사례 공유> 발표 3. SDGs로 구현하는 혁신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 - KT 글로벌지속가능TF 김윤정 팀장 발표 4.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아모레퍼시픽의 SDGs 추진 전략 - 아모레퍼시픽 CSR팀 강승성 팀장 발표 5. K-Water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SDGs 연계 방안 - K-Water 경영혁신실
16:10 - 16:5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

분과세션 3.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협력기관: 여성신문, BPW Korea)

- 기업의 유리 천장 해소와 여성 인재 육성 등 기업 내 다양성 증진과 성 평등 문화 내재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및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 발족한 여성역량강화 플랫폼 WEPs 소개
- 정부의 성별균형 고용성장 촉진 정책 소개 및 기업의 우수 이행 사례 공유



시 간	프로그램
14:50 - 14:55	축 사 - BPW Korea 이정의 회장
14:55 - 15:15	발표 1. 성 평등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및 국내외 동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부연구위원
15:15 - 15:30	발표 2. 여성역량강화원칙(WEPs)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락 글 선임연구원
15:30 - 16:10	<기업 우수 사례 공유> 발표 3. 롯데그룹의 Diversity Eco System - 롯데지주 인재육성팀 손영정 수석 발표 4. KB금융그룹의 여성인재 양성과 양성평등 실천 전략 - KB금융지주
16:10 - 16:5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나사렛대학교 인무속 객원교수 / 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패널: 커리어컨설팅협회 황은미 회장 / 前 BPW Korea 회장 전더앤리더십 강양희 대표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여성신문 신준철 본부장

분과세션 4. 통일과 SDGs [*Youth Session]

- 2016년 '유엔전략계획 2017-2021' 등 SDGs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과 국제사회 협력 방안을 파악
- 청년들이 SDGs를 기반으로 기업시민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시 간	프로그램
14:50 - 14:55	축 사 - 한국리더십학교 이장로 교장
14:55 - 15:15	발표 1. 통일의 시대, 평화와 가치 - 통일과 나눔 전병길 사무국장
15:15 - 15:35	발표 2. SDGs, 북한 개발협력 담론의 패러다임 변화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조동호 교수 (TBD)
15:35 - 15:55	발표 3.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4P)와 SDGs에 기반한 기업의 역할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애화 선임연구원
15:55 - 16:15	발표 4.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SDGs 시대 청년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조언 - 더브릿지 황진솔 대표
16:15 - 16:5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조정훈 소장) - 패널: 청년대표 1, 2

[\[원문보기\]](#)

2. 유엔글로벌콤팩트 2019/20 연회비 정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2019/20 연회비 정책 안내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2018년 의무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였고, 그에 따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도 아래와 같이 2019년부터 신연회비 정책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초 본부와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회비 구분>

구분	대상
(가)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기준 참여 레벨(Engagement Tier) 및 연매출에 따른 연회비 납부	연매출 500억 이상의 민간기업, 공기업 시장형 및 준시장형, 지방 공기업
(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준 임직원수에 따른 연회비 납부	연매출 500억 이하의 민간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학계

- 참여레벨 선택 및 연회비 납부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기관)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회원사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회비 미납의 경우, COP/COE 보고서 제출을 통한 회원 활동 유지와 무관함

<2019년도 연회비 납부 기한>

분기	최대 납부 기한	비고
1/4	2019년 5월 31일	※ 기존 연회비 미납 회원은 1/4분기 청구 대상으로 분류
2/4		
3/4	2019년 8월 31일	※ 2019년도 예산 미반영 기업은 사전 요청시 2020년 1분기까지 납부 기한 연장 가능
4/4	2019년 11월 30일	

[2019 적용환율=1,100원]

- 회원 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확인해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31일까지)
 (가) 회원의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홈페이지에서 연매출 기입 후 참여 레벨 선택 → 연회비 청구서 발행 → 연회비 납부
 (나) 회원의 경우: 분기별 연회비 청구서 발행 → 연회비 납부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 02-749-2150/82 E: gckorea@globalcompact.kr

[\[원문보기\]](#)

본부소식

1. UNGC 리더스 위크, 기후 위기 해소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진전 논의

9 월 23 일부터 26 일까지 열린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위크\(Leaders Week\)](#)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정부, 시민사회, 청소년 리더들과 만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가속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유엔에서는 기후변화, 보건, 지속가능한 금융, 제 1 차 SDG 정상회의 등 제 74 회 유엔총회의 고위급 회의 의제에 맞춘 고위급 회담들이 잇따라 개최되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유감스럽게도 2015 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 지형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더욱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오늘날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기업은 이 문제 해결의 핵심 파트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위크에는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 미아 모틀리(Mia Amor Mottley) 바베이도스 총리,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의장), 아미나 J.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차장 등 고위급 연설자들이 참여했습니다.

9 월 23 일, 유엔 사무총장의 기후행동 정상회의의 공식 오찬을 겸하고 있는 [민간부문 포럼\(Private Sector Forum\)](#)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5°C를 위한 비즈니스 포부-우리의 유일한 미래\(Business Ambition for 1.5°C — Our Only Future\)](#)' 캠페인에 동참한 기업 리더들의 발표를 포함한 야심찬 기후 행동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캠페인은 1.5°C 에 일치하는 기업 전략이 비즈니스 및 전 세계 공급망을 위한 새로운 표준이(New Normal)이 되는 전환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리더들은 ['1.5 °C 미래를 위한 변혁적인 비즈니스 리더십'](#) 세션에 참여해 기후 문제에 대한 실행가능(Implementable)하고 확장가능(Scalable)하며 반복가능(Replicable)한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엑센추어와의 협력을 통해 99 개 국가의 21 개 산업, 1,000 여명의 CEO 들로부터 통찰력을 끌어낸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새로운 CEO 연구에서 얻은 핵심 통찰력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연구에는 비즈니스 리더들은 2030 아젠다까지 4,000 일이 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진행 경과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부문 및 동료들이 나서서 약속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9 월 23 일 월요일에는 글로벌 목표 진전을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신규 글로벌 이니셔티브, 'SDG 포부(SDG Ambition)'가 발표되었으며, 25 일 [여성 선구자 리셉션\(Trailblazing Women Reception\)](#)에서는 또 다른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타겟 성평등(Target Gender Equality)'이 소개되었습니다.

같은 날, 유엔글로벌콤팩트 행동 플랫폼, '지속가능한 해양사업'에서 주관하는 해양 고위급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해양 원칙'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행동플랫폼인 '건강은 모두의 비즈니스'에서 사람과 환경의 건강에 동시에 도움되는 기업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9 월 25 일, 사상 최초의 SDG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된 연례 [SDG 비즈니스 포럼](#)은 SDGs 달성을 위한 기업 행동과 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특별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본 플랫폼은 회원사들이 경영에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 대 원칙 이행 노력을 조사한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 보고서'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SDG 선구자'도 같은 날, SDG 미디어 존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SDG 진전을 위해 기업을 선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SDG 선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 년 SDG 선구자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35 세 이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9 월 26 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SDGs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CEO 및 CFO 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기업의 SDG 금융투자 관련 고위급 CEO 라운드테이블([High-level CEO Roundtable on Corporate SDG Finance and Investment](#))을 소집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성 솔루션을 향한 혁신적인 민간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SDGs 를 위한 금융 혁신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행동 플랫폼](#)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하였습니다.

[\[원문보기\]](#)

2. 87개 선도기업들,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1.5°C 기후 목표 실현 약속

전체 시가총액이 총 2조 3천억 달러이자,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연간 73개의 화력 발전소와 동등한 87개 글로벌 기업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고자 기후 과학자들이 제안에 맞춰 기업활동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87개社は 총 28개 분야에서 42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7개 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 시민 사회, 유엔 대표들이 6월에 발표한 [call-to-action](#)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C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사운영 및 가치사슬 전반에서 기후 목표를 설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5° C 기후 목표가 7월에 발표된 이후, 참여를 약속한 기업의 수는 28개에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참여를 약속한 기업은 △ADEC Innovations, △América Móvil, △SICS Corporation, △Atlassian Corporation, △Bharti Airtel Limited, △Burberry, △City Developments Limited, △The Co-operative Group, △Croda International, △Cybercom Group, △Danone, △Deutsche Telekom, △Dexus, △EDP - Energias de Portugal, △Electrolux, △Elopak, △En+ Group, △Ericsson Group, △Firmenich, △Glovo, △Grupo Malwee, △Guess, △Ingka Group, △Inter IKEA Group, △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 △Intuit, △Klabin, △L'Oréal, △MARUI GROUP, △Nestlé, △Nokia, △Novo Nordisk, △NRG Energy, △Orange Group, △Ørsted, △PensionDanmark, △Reliance Jio Infocomm Limited, △Saint-Gobain, △salesforce.com, △Scania; Schneider Electric, △Seventh Generation, △SkyPower, △Sodexo, △SUEZ, △Swiss Re, △TDC, △Viña Concha y Toro, △Wipro 등이 있습니다.

본 서약은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하고 세계 정상들이 참석한 '기후행동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정상 회의는 정부,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이 IPCC의 최근 보고서에서 논의된 1.5°C의 상승의 치명적인 영향력 대한 대응 계획을 명확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 기후 주간(Climature Week NYC) 개막 직전에 전달되었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민간부문의 많은 리더들이 시민사회, 정부와 1.5°C 미래를 협력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격려하며,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여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정부들이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제로화를 이룰 수 있는 장기적 목표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원에서 볼 수 있듯, 기업은 정부 정책과 민간 부문 리더십을 서로 강화하며, [긍정적 피드백 루프](#)(Positive Feedback Loop)라고도 불리는 앰비션 루프 (ambition loop)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기후 변화 행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87개 기업은 파리 협정에 맞춰 기업 배출 감소 목표를 평가하는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통해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합니다.

87개 기업 중 △AstraZeneca, △BT, △Burberry Limited, △Deutsche Telekom AG, △Dexus, △Elopak, △Hewlett Packard Enterprise, △Intuit, △Levi Strauss & Co., △L'Oréal, △Schneider Electric, △SAP, △Signify, △Sodexo, △The Co-operative Group 및 △Unilever은 이미 기업 활동 중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포함하여 1.5°C 궤도에 맞춘 승인된 목표(reduction targets)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모든 기업은 가치 사슬 전반에 해당 목표 적용하면서 캠페인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가치 사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기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양의 평균 5.5배입니다.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며 기후 행동 정상 회의의 정식 오찬인 ['유엔글로벌콤팩트 민간부문 포럼'](#)(UN Global Compact Private Sector Forum)에서 “대담한 기업들은 1.5°C에 궤도를 기반으로 선도적인 회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전 세계 비즈니스 및 공급망에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스티어(Andrew Steer) SBTi 이사이자 세계자원연구소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의 대표는 “1.5°C 이상의 기후 상승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목표는 기업이 명확한 기여를 통하여 파리 기후 협정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Business Ambition for 1.5°C - Our Only Future”](#) 캠페인의 일환으로 9월 22일 참여를 선언한 기업에는 △Acciona, △AstraZeneca, △Banka BioLoo, △BT, △Dalmia Cement Ltd, △Enel, △Hewlett Packard Enterprise, △Iberdrola, △KLP, △Levi Strauss & Co., △Mahindra Group, △Natura &Co, △Novozymes, △Royal DSM, △SAP, △Signify, △Singtel, △Telefonica, Telia, △Unilever, △Vodafone Group, △Zurich Insurance 등이 있습니다.

[\[원문보기\]](#)

3. “1.5°C 를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 보고서, 기업 리더들의 행보에 주목

유엔글로벌콤팩트, DNV GL, 서스테니아가 유엔기후행동정상회담을 맞아 세계 온도 상승을 1.5°C 로 제한하는 야심찬 기후 행동을 취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총 시가 총액이 2 조 3 천억 달러에 달하고 연간 직접 배출량이 73 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와 동일한 87 개 기업이 “[1.5°C 를 위한 기후 의지 — 우리들의 유일한 미래](#)”(Business Ambition for 1.5°C — Our Only Future)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로 제한하는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야심찬 기후 목표를 가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1.5°C 비즈니스 리더십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악영향을 해결하는 데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개발한 솔루션과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업들은 정부 및 유엔과 협력을 통해 기후 운동의 선두에 서서 산업과 비즈니스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모색할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NV GL 의 그룹 사장 겸 CEO 인 레미 에릭센(Remi Eriksen)은 “현존하는 기술들을 통해 파리기후협약을 포함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전환은 분명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오늘날의 비즈니스와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많은 기회들을 열어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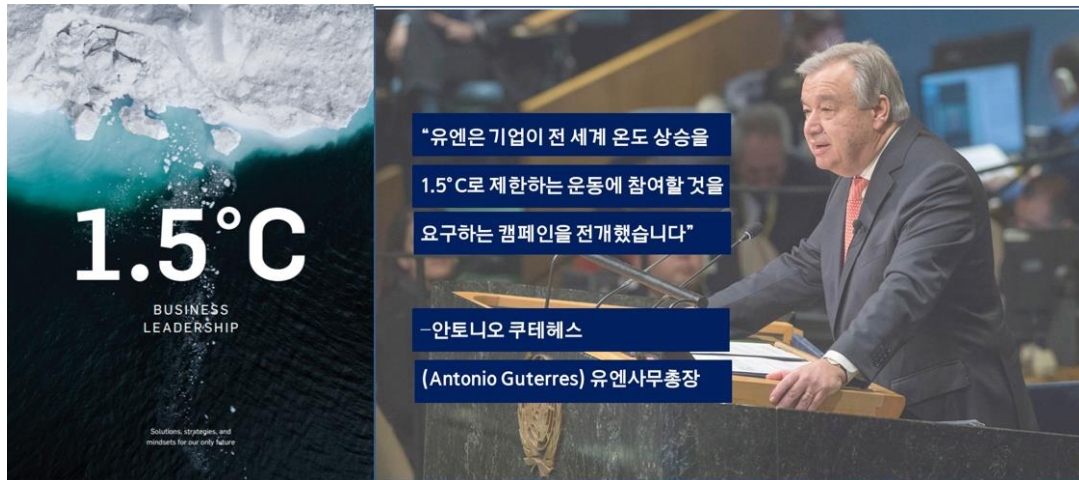
본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후 과학자가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행동과 상응하는 기업 배출량 감소 목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통해 과학 기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기업 전략 및 의사 결정에 통합하려면 전 직원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며 1.5°C 비즈니스 리더십 보고서는 리더가 이것을 시작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서스테니아의 CEO 이자 수석 파트너인 라스무스 쇼트 페데르센(Rasmus Schjødt Pedersen)은 “1.5°C 캠페인에 대한 비즈니스 목표는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변화 요소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회사의 경쟁 우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발간물] “1.5°C 를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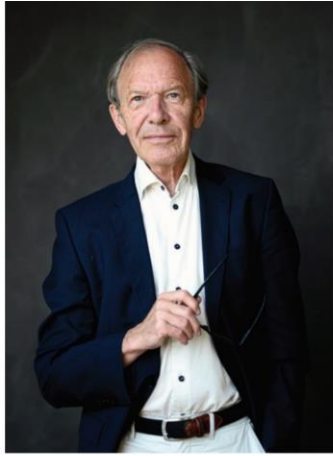


2015 년, 파리협약은 세계 정부가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이하로 제한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 로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각 정부의 추진의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1.5°C 이하로 온난화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기존의 정부 추진의지를 5 배 향상시켜야 한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1.5°C 의 지구 온난화에 관한 '2018 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특별 보고서'는 모든 부문과 국가에서 긴급한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0.5°C 가 막대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현실(market reality)이며, 근본적인 사고 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현존하는 기술들은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포함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아직 많은 분야에서 보다 가속화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본 보고서는 기후 리더십의 기본 전제 조건인 '기회 마인드셋(Opportunity Mindset)'이 어떻게 1.5°C 시나리오를 통해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전문가의 인사이트와 주요 기업들의 전략 및 솔루션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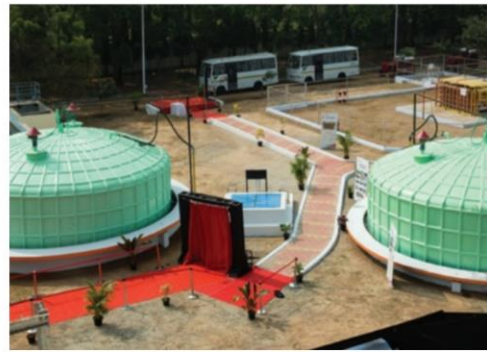
**“1.5°C 트랜스포머 되기”
에릭 라스무스 (Erik Rasmussen)
서스테이니아(Sustainia) 설립자**



**아마존의 순환탄소
나투라(Natura)**



**물을 절약하는 청바지 생산
리바이스**



**인도 도시들을 위한 폐기물의 에너지화
마힌드라(Mahindra)**

[\[보고서 다운받기\]](#)

4. [유엔글로벌콤팩트-액센추어 공동연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비즈니스 기여 궤도 벗어나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액센추어가 실시한 세계 최대의 지속가능경영 연구에 따르면, 최고경영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의 공헌이 목표 실현 궤도를 벗어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발표된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액센추어 CEO 전략 스터디 (UN Global Compact-Accenture Strategy 2019 CEO Study — *The Decade to Deliver: A Call to Business Action*)'는 최고경영자 중 불과 21%는 기업이 글로벌 목표 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하인 48%가 비즈니스 운영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증가한 사회경제적, 지정학적, 기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2015년 글로벌 목표 설정 이후 진행된 진보와 혁신에도 불구하고 CEO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 주요 조직의 1,000명 이상의 최고경영자로부터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는 100여개국의 약 1,6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UNGC 이행보고서(*UN Global Compact Progress Report 2019*)'와 함께, 2030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기업 기여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제공합니다.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2030의제 실현까지 4000일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기업 지도자들은 현재 진행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이 나서서 약속을 실천에 옮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도전의 규모가 전례 없이 큰 만큼 정부, 기업 지도자, 투자자, 주주, 시민사회, 학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발간물]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엑센추어 CEO 전략 스터디



비즈니스 기여가 2030 의제 달성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2016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들은 글로벌 목표가 기업이 SDGs를 실현하는데 있어 명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들은 기업의 행동이 글로벌 이슈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을 뿐 더러 예전의 의지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작아졌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 년

- **49%**가 기업이 글로벌 목표 실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 **78%**가 핵심 사업 전략을 통하여 글로벌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90%**가 자사가 2030의제 실현을 이끌 것을 보장하였습니다.

2019 년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행보고서에 의하면 **48%**가 비즈니스 운영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 **21%**가 기업이 글로벌 목표 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71%**의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헌신과 행동이 증가하면 민간부문이 글로벌 목표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글로벌 목표 달성까지 남은 10 년

최고경영자들, 과감한 조치를 통하여 글로벌 목표에 대한 민간 부문의 기여도 가속화 요구

비즈니스 불확실성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행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8%



시장의 건인 부재가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43%



세계 최대 기업의
43%가 경쟁 전략의
우선순위가 지속가능성
구현의 최대 장벽이라고
응답

55%



장기 전략 목표 이행 시
극도의 비용 절감
압박과 이에 따른
절충을 마주하고 있음.

63%



시장·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의 경쟁 전략에 있어
가장 심각한 세계적 난제

최고경영자들은 기업들이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와 사회를
달성하는데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63%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기술이 자사의 사회
•경제적 영향의
증대시키는데 중대한
촉진제.

78%



아시아 및 북미 기업
최고경영자 78%가
천연자원의 사용 및 환경
악화와 경제 성장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응답.

76%



향후 5년간 동안
시민의 신뢰는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응답.

88%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공평한 성장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응답.

최고경영자들은 세가지 주요 요구 사항을 이행하여 영향을 극대화하고 2030의제에 대한 민간

부문의 기여 궤도를 수정할 것을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CALL TO ACTION 1. 일상에서의 노력: 산업 내 포부와 영향력 증대.

성공적인 2030 의제 전달을 위해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 글로벌 목표와 연계된 행동을 통한 의지 확대



| 시장 및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하여 광범위한 산업에서의 활동 추진



| 글로벌 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 채택

CALL TO ACTION 2. 도전 시 더 정직하게 협력하여 실제 영향 창출

행동의 영향을 더욱 광범위하게 넓히고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업인들은 다음 3가지 행동을 통하여 공동행동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현실적인 과학기반 솔루션 형성: 문제 해결 시, 장단점과 문제점에 대해 진실되게 토의



| 공평한 경쟁의 장 마련



| 지역 행동 독려: 기업은 글로벌 및 로컬 행동 구현 중 지역 파트너십 향상

CALL TO ACTION 3. 이 시대 리더들의 필요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책임 있는 리더십 정의

기업이 글로벌 목표 실현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의 9가지 조건



| 자사 및 시장

시스템 변경 주도 / 지속가능한 시장 수요 촉진 /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문화 구축



| 생태계

문제점을 파악 및 과학 기반 리더십 참여 / 생태계에 대한 책임 확대 및 산업 향상

/ 협업 진행



| 개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 투자자 독려 / 의미 있는 변화 주도

[\[보고서 다운로드\]](#)

5. 유엔글로벌콤팩트, SDGs 위한 투자 유도를 위해 재무최고책임자(CFO) 네트워크 발족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세계 최초로 기업 전략과 투자를 통해 SDGs 를 추진하는 데 집중하는 CFO 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개발을 위한 자금마련과 관련한 고위급 대화'와 함께 개최된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재무 최고 책임자 네트워크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2030 의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나타나는 2~3 년의 자금 격차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부국장은 "현재의 투자율은 2030 년까지 SDGs 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사람, 사회, 환경 및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 전략을 SDGs 에 맞추기 위한 진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기업은 그들이 진출한 신흥 시장과 선구 시장의 주요 개발과제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SDGs 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들을 잠재적 성장의 원천으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CFO 를 위한 본 네트워크는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금융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CFO 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신흥 시장과 선구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CFO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다 지속가능한 금융 시장을 만들고 협력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EO 라운드테이블은 다양한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을 모아 중요한 글로벌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며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마련의 길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 진행된 대화는 어떻게 투자자들, 금융기관들과 금융기업들이 기업 전략 및 자본 시장 활동을 통해 SDG 자금 마련 아젠다의 구체화 방안에 대한 문제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콧 메터(Scott Mather) PIMCO 최고 투자 책임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으로 현명한 투자를 하고 리스크와 기회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던 투자자들도 지속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메가 트렌드라고 언급하며 “본인들의 투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이것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스타레이스(Francesco Starace) 에넬(Enel) CEO 이자 SDGs 자금마련을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액션 플랫폼 후원자는 최근 에넬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금마련 목표를 위한 첫 걸음으로써 최초 범용 발행한 SDG 연계 채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장 파스칼 트리꾸아(Jean-Pascal Tricoire)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CEO 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공통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기업들은 준비는 되어 있음에도 20 가지의 보고 시스템과 20 가지의 사고 방식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CFO 네트워크는 SDG 채권과 기업 금융전략에 SDGs 를 통합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발행한 보고서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속가능한 금융 담당 수석 고문인 마리 모리스 (Marie Morice)는 “새로운 CFO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 부문의 글로벌 목표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에 더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6. SDG 비즈니스 포럼,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행동 촉구

SDG 서밋의 첫 세션이었던 제 4 차 연례 SDG 비즈니스 포럼(the fourth annual SDG Business Forum)에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다짐에서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 정부, 시민사회 및 유엔이 모였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유엔경제사회국(UN DESA), 유엔글로벌콤팩트가 4 년 간 공동 주최하고 있는 본 포럼은 600 여명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지속가능한 금융, 비즈니스의 미래 및 지속가능한 세계의 확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아미나 제이 모하메드 (H.E. Amina J. Mohammed) 유엔 부국장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목표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성공 궤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의지 있는 기후행동과 같은 목표 달성이 시급하므로 우리는 보다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여러분을 포함한 전 세계의 헌신적인 움직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우 쯤민 (Liu Zhenmin) UN DESA 사무총장은 유엔사무총장이 제기한 긴급조치의 필요성을 청중들에게 알리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 보편적인 안건을 위해 기업과 산업을 포함하여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30 년까지 SDGs 를 글로벌 수준에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리세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최근 발표된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 보고서 2019 (UN Global Compact Progress Report 2019)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질문에 응답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의 90 %가 10 가지 원칙 각각에 대해 정책과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응답자 중 81 %가 글로벌 목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이러한 의지가 행동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 전략, 정책 및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측정가능한 영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영향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핵심 전략, 운영, 공급망 관리 및 이해관계자 참여에 완전히 통합해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SDG 비즈니스 포럼의 패널 토론은 기업이 SDGs 를 재무, 운영 프로세스 및 내부 의사결정에 유형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패널리스트는 세계적인 변화에 맞춰 변모하고 있는 기업 환경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존 덴튼 (John Denton)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민간 자금 조달을 글로벌 목표에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올바른 운영에 대해 현실적이고 진솔하며 숨김 없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유망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은 현재 모두가 표준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시장의 유일한 예외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폴 폴만 (Paul Polman) 이메진(Imagine) 공동 창립자는 2030년까지 SDGs 현실화하기까지 2~3조 달러의 자금조달격차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폴 폴만 창립자는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행동을 취하지 않는 비용이 행동 비용보다 높아지는 특정 시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청중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SDG 비즈니스 포럼은 프린스 책임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the Prince's Responsible Business Network), 국제 고용주 조직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Employers) 및 지속가능한 세계 비즈니스 협의회 (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함께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제 74 회 유엔 총회의 분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문보기\]](#)

7.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LEAD' 발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9월 22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10가지 원칙 이행과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UNGC LEAD ([Global Compact LEAD](#)) 기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UNGC 리더스 위크(UN Global Compact Leaders Week 2019)'에서 발표된 해당 기업들은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가장 참여도가 높은 기업들입니다. 금일 발표된 36개의 LEAD 기업들은 전 세계의 모든 지역과 19개 산업군을 대표합니다.

리세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LEAD 기업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에 있어 최고 수준의 이행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는 LEAD 기업과 같이 지속가능성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기업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NGC LEAD 자격 요건

1.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및 10대 원칙 지지선언
2. 2개 이상의 액션 플랫폼 참여를 통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를 증명과 10대 원칙 및 글로벌 목표에 따른 리더십 이행을 규정 및 강화
3. 10대 원칙 이행에 대한 진행상황을 기술한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 이행보고서 (Advanced Communication on Progress) 제출 및 지지 선언

2019 UNGC LEAD 리스트

[Accenture](#), 미국 / [A.P. Moller - Maersk](#), 덴마크 / [ARM](#), 영국 / [BASF SE](#), 독일 / [Bayer AG](#), 독일 / [Braskem S.A.](#), 브라질 / [China Development Bank](#), 중국 / [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rporation - SINOPEC](#), 중국 / [Colgate-Palmolive Company](#), 미국 / [Daimler AG](#), 독일 / [Danone](#), 프랑스 / [Enel S.p.A.](#), 이탈리아 / [Eni S.p.A.](#), 이탈리아 / [Firmenich S.A.](#), 스위스 / [Global Impact Initiative](#), 호주 / [Iberdrola S.A.](#), 스페인 / [Inditex, Industrias de Diseno Textil, S.A.](#), 스페인 / [Knoll Printing & Packaging, Inc.](#), 미국 / [L'Oréal](#), 프랑스 / [Nestlé S.A.](#), 스위스 / [Novozymes](#), 덴마크 / [Pernod Ricard](#), 프랑스 / [Pirelli & C. S.p.A.](#), 이탈리아 / [PJSC PhosAgro](#), 러시아 / [PTT Global Chemical Company Limited](#), 태국 / [RELX Group plc](#), 영국 / [Safaricom Limited](#), 케냐 /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Ltd.](#), 러시아 / [Schneider Electric SE](#), 프랑스 / [SOCAR AQS](#), 아제르바이잔 / [SUEZ S.A.](#), 프랑스 / [Sumitomo Chemical Company, Limited](#), 일본 / [Total S.A.](#), 프랑스 / [Unilever](#), 영국 / [UPM-Kymmene Corporation](#), 핀란드 / [Volvo Car Corporation](#), 스웨덴 /

[원문보기]

8. 유엔글로벌콤팩트, 2019 SDG 선구자 발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9 월 16 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확산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젊은 비즈니스 리더인 10 명의 새로운 [SDG 선구자 \(SDG Pioneers\)](#)를 발표했습니다.

2019 SDG 선구자의 선정은 참여레벨에 관계없이 UNGC 회원사의 실무진 중 35 세 이하의 청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이번에 선정된 뛰어난 청년 전문가들은 내부적 혁신이 오늘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필요한 효율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2019 SDG 선구자들은 2030 년까지 글로벌 목표를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움직임에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DG 선구자’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의해 선정 및 평가 진행되었으며, 선정기준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을 자사의 핵심전략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 및 SDG 진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계 수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SDGs 선구자’ 프로그램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진행하는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캠페인의 일환으로, 2030 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돕기 위한 기업의 인식과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되는 다년간의 캠페인입니다.

[\[원문보기\]](#)

SDGs 소식

1. 자투리 원단을 재활용해 만든 담요



셀작브랜드 (Seljak Brand)는 공장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따뜻하고 아름다운 담요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2016년에 두 자매가 함께 런칭한 셀작브랜드는 패션산업 내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줄이기 위해 위졌습니다.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메리노 울은 호주 태즈메니아 주의 가장 역사 깊은 울 공장에서 폐기하는 원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울 원단은 완전히 분해된 뒤 실로 재활용되어 새로운 상품을 직조하는데 사용됩니다. 셀작브랜드의 담요는 70%의 재활용 메리노 울과 30%의 폴리에스테르·재활용 알파카 울 혼합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요는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제작되었으며, 각각의 상품은 공장에서 폐기되는 원단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더 이상 담요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경우, 제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제품을 새로운 담요를 제작하는데 재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셀작브랜드는 10 개의 담요가 판매될 때마다 멜버른의 난민 지원 센터인 'Asylum Seeker Resource Centre'에 담요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셀작브랜드는 다른 유형의 섬유 부산물로도 담요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개발을 위해 32,000 달러를 모금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회사와 협력하여 재료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hy you should care

대부분의 섬유 산업은 주로 제조 단계에서 다른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섬유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부산물로 인한 총 폐기물 추정량은 4,000 ~ 1,200 억 m² 정도입니다. 셀작브랜드는 잠재 가치의 원천을 찾아내는데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기업의 한 사례입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의류용 섬유의 약 15%는 제조 단계에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셀작브랜드는 이러한 문제를 올 섬유부터 해결하기 시작하여, 다른 섬유로도 영역을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모금을 받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2. [Goal 1, 7, 11]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수력원자력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TRUST 기반 지속가능경영 전략

한수원은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하고자 기업의 핵심가치인 T.R.U.S.T 에 맞춰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전략과 연계된 실행과제와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각 부문별 현업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표

경제, 환경, 사회 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성장과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

	전략방향	실천과제	추진현황('17~'18)
추진전략	Technology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청정에너지 육성 해외 원전·수력 사업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년 연속 RPS 의무량 이행 EU-APR 유럽사업자협회 인증 획득 네팔 차멜리아 수력 발전소 준공
	Respect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린고용 및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맞춤형 인재 양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본상 수상 국가지속가능경영 동반성장 대상 수상
	Ultimate Safety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유형별 관리체계 고도화 산업 안전사고 예방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 재해율 0.92% 체험형 산업안전 교육장 건립 확대 원전 정보신뢰센터 신설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경영 추진체계 강화 안전·행복 사회공헌 사업 내실화 지역상생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재인증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원전지역수용성 3년 연속 향상
	Timeless Integrity (정도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경영 체계 강화 청렴윤리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회 국민권익의날' 부패방지부문 대통령상 수상 한국감사인협회 주관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 선정

2. SDGs 전략 및 사례

- SDG 7,9 글로벌 Top 원전 핵심기술 개발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KHNP APPROACH

한수원은 '글로벌 TOP 종합에너지 기술개발'을 비전으로 원전운영 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신성장동력 창출 기술,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등 재난에 대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통 안전 및 방사선관리 기술 등을 연구하고, 원전 기기 신뢰도와 재료 건정성 확보 및 4 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설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력,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함께 원전수출 및 원전해체 등 신성장동력을 얻기 위한 기술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유럽으로 나아가다

2017 년 10 월 한수원의 유럽 수출형 원전인 EU-APR 의 표준설계가 유럽 신규 원전의 사업 입찰 시 기술 요건서로 활용할 수 있는 유럽사업자 요건(EUR) 인증의 본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EU-APR 표준설계는 국내 및 UAE 에 건설중인 APR1400 을 유럽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이번 EUR 취득을 통해 유럽에 건설될 신형원전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이제 유럽은 물론 EUR 요건을 요구하는 남아공, 이집트 등의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전 수출시장을 다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다

한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2018 KHNP-IAEA HRD(인력 양성) 컨퍼런스'를 2018 년 5 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60 여 개 나라에서 500 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해 원자력 인력 양성에 대한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UAE 바라카에 수출한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모형을 IAEA 에 기증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한국의 신형원전인 APR1400 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증한 모형은 현재 IAEA 오스트리아 본부에 상시 전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한국 원전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에서도 원전 안전성을 인정받다

2018 년 9 월 한수원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APR1400 신형경수로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를 받았습니다. 표준 설계승인이란 NRC 가 원전의 표준설계를 평가해 안전규제 요건의 만족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한국 APR1400 원전의 안전성이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입증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안전성 입증으로 한수원의 원전 설계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한국 원전의 미국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SDG 3,11 안전 최우선 원전관리 체계 구축

KHNP APPROACH

한수원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안전문화 내재화와 설비품질 확보 등으로 안전 최우선 원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극한 재난 및 중대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내진 안전성 강화를 실시하였고, 사회재난, 방사능재난, 사이버테러 등 다양한 재난 유형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협력회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원전운영의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4 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 이슈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원전 정보 검증기구인 KHNP 정보신뢰센터를 설립하여 원전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35 조에 따라 2018 년 5 월 14 일부터 5 월 18 일까지 5 일 동안 원전본부를 비롯한 한수원 모든 사업소에서 지진대응, 방사선비상훈련 등 32 건의 복합재난 대응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골든타임 내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복합재난 대응훈련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재난을 가정해 실전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실전 같은 훈련으로 재난 대비의 초석을 마련하다

2018 년 5 월 15 일 월성 원자력본부에서 10 개 유관기관을 포함해 약 5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성본부 인근 강진 발생에 의한 복합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전 10 시 30 분부터 12 시까지는 CEO 가 직접 주재한 토론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오후 1 시 30 분부터 3 시 30 분까지 규모 5.4 와 7.2 의 지진 발생을 가정하여 이에 따른 유해물질 누출, 방사능 누출, 화재 등의 재난에 대응 하는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실질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재난대응 종합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훈련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과의 연계로 실제 상황 발생 대비 지휘부와 현장간의 지휘, 보고체계를 재점검하였습니다. 한수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신속한 상황보고와 전파 및 협업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재난대응 지휘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훈련 시간별 상황 및 대응

상황 발생 시간	상황	대응
14:00	경주지역 지진발생(규모 5.4)	B급 비상 발령. 소내 인원 대피
14:10	경주지역 지진발생(규모 7.2)	A급 비상 및 청색 비상발령
14:15 ~ 14:22	송전탑 붕괴로 소내·외 전원 상실	이동형발전차 및 펌프차, 불탱크 펌프차 출동. 이동형발전차 대체케이블 포설
14:45 ~ 14:53	황산누출사고 발생	우해화학물질 대응조 및 119 특구단 제독 및 수거
14:53 ~ 15:00	원자로건물 격리기능 상실로 방사능 누출	적색비상 발령. 지역주민 대피요청. 이동형발전차를 이용한 비상전원 공급
15:00	화재발생	자체소방대 및 경주소방서 화재진화

- 4차 산업기술 기반 원전 안전운영

빅데이터 활용 자동예측진단 시스템 개발

설비상태의 정보를 분석하여 기기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24개 호기 전 원전 감시시스템을 온라인 연계하고 원전 핵심설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로 예측진단용 빅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설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 체계적으로 관리된 빅데이터를 사용해 선제적으로 기기를 정비하여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한수원은 자동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진단대상을 확대하여 핵심설비 고장의 제로화를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적용 E-Tower 기능 확대

E-Tower는 다양한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Control Tower로 전 원전을 24시간 통합 감시하여 발전소 이상 징후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발전소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예측진단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요소 발굴 역량을 높임으로써 사전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기존의 정상 100% 상태뿐 아니라 정지 및 저출력 상태일 때도 이상 징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운전 변수를 재분류하여 2017년 고장 정지 3건을 예방하였습니다.

- SDG 1,3,11 안전·행복 사회공헌 사업 내실화

KHNP APPROACH

한수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 체계를 정립하고, 안전·행복을 증진하는 한수원 대표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전한 밤길을 보장하는 안심가로등 사업을 비롯해 지역아동 교육, 저소득층의 주거 개선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 이전을 계기로 경주시와 한수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주종합발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체코에서의 글로벌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안전 취약지역의 불빛을 밝히다

한수원은 발전사의 특성을 살려 태양광 안심가로등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심가로등은 어두운 골목길, 취약계층 거주지와 같은 안전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국민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귀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전국 7개 지역에 401본의 가로등이 설치되었고, 누적 1,008본의 태양광 안심가로등이 불을 밝힘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의 희망의 불빛을 밝히다

한수원은 태양광 안심가로등을 설치한 지역 내 저소득 위기가정에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반딧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평창군을 포함한 7개 지역의 394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안전의 불빛을 밝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시 강원도 평창에 안심가로등을 설치하여 선수, 관객,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밝은 거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평창의 올림픽선수촌과 횡계리 지역에서 2017년 8월에 안심가로등 사업을 착공해 10월 기준으로 약 3km 구간에 걸쳐 가로등 90분을 설치하여 세계인이 함께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방법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태양광 안심가로등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2017년 '제2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범죄 예방활동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심가로등 사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1.5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복원력 구축 및 자연 재해와 재난으로부터의 취약성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및 기타 재난이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한 것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2)의 채택 이후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COP)의 제 8차 회의(2002)였습니다. UNFCCC가 채택될 당시, 유엔 총회에서는 당사국을 부속서 1 국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와 체제전환국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OECD에서는 정례 COP 개최 이후, 주요 논의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왔고, COP9 이후 발간된 '빈곤과 기후변화(2002)'에서는 빈곤 퇴치와 빈곤층에 끼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루었습니다. 동 보고에서는 모든 기후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인 기후 적응 전략이 빈곤층의 취약성을 경감시켰으므로 빈곤감소 전략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기후 적응 방안은 빈곤층의 발전 기회에 영향을 주는 환경, 사회, 경제적 문제와 통합적으로 다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SDGs에서는 기후변화가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 감소를 추진합니다.



SDGs 세부목표 7.a는

청정 에너지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투자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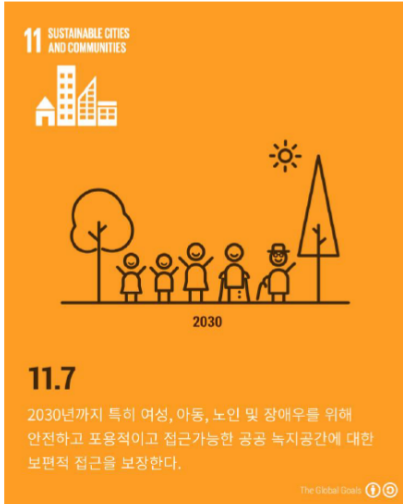


2013년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를 '유엔 지속가능한 에너지 10개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E4ALL) 포럼을 2014년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본 포럼은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적 에너지 파트너십 및 현대적 에너지에 접근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고위급 회의: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서의 에너지'에서 전 멕시코 대통령이자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의 의장인 Felipe Calderon은 재생에너지 생산비가 화석연료 생산비보다 저렴해지면 산림 황폐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에너지 연구 개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1.7은

공공 녹지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인간정주계획(UN-HABITAT)은 여성, 아동, 미등록 이주자와 같은 집단은 폭력 및 통제에 의해 공공 장소로부터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 및 공공 장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21세기형 도시의 특징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연례보고서(2013)를 통해 녹지 공간이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과 공공 장소에 대한 접근이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시민 권한 강화의 첫걸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은 결의안(2011)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공공 장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모든 시민, 특히 여성, 여아 및 기타 취약 집단을 위한 도시 안전을 공공 장소 사용 관련 법률에 통합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1.b은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에 따른 통합재난위험관리 개발 및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은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1987)'을 통해 모든 사람에 대한 자연재해 영향력 감소가 중요함을 인식했습니다. 특히, 유엔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는 재난경감을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인 '효고 행동 프레임워크(2005)'를 수립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비롯한 국제사회 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재해위험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재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나아가 제 3차 유엔 세계재해경감회의(2015)에서 2015년 이후의 새로운 재해위험관리 프레임워크로 채택된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는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계획되지 않은 급속한 도시화 및 부실한 토지 관리를 비롯해 인구 변화, 재해 경감을 위한 민간 투자에 대한 규제 부재, 천연 자원의 지속불가능한 사용, 생태계 파괴와 같은 복합적인 재난위험의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해경감 전략 강화 및 재난 대응과 복원을 위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본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된 경제 · 법 · 사회 · 문화 · 환경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강조했습니다. SDGs는 이에 근거한 통합재난위험관리 개발 및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원문보기\]](#)

UNGC 회원뉴스

1. 국내 금융지주 4개사, UN 책임은행원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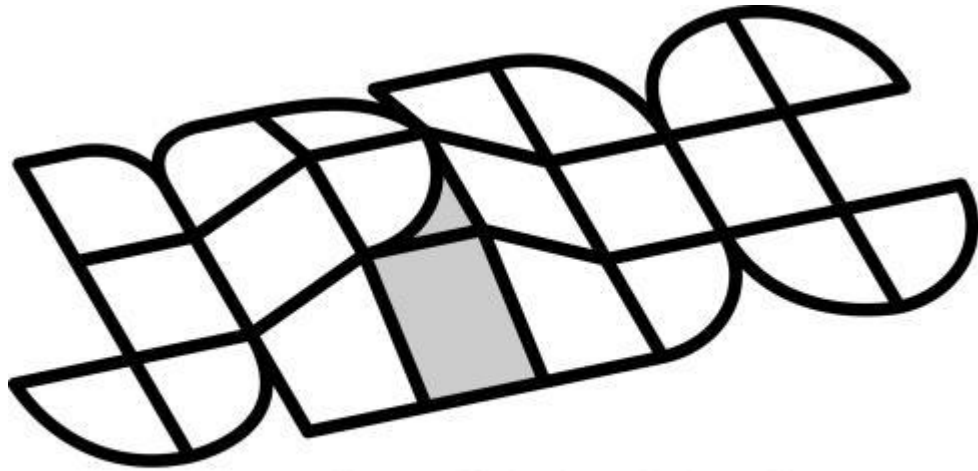
- 신한·KB·하나·DGB 금융 등 국내 4 대 금융지주사가 지난 22 일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UN 책임은행원칙(UN PRB) 출범식`에서 전세계 금융 산업을 위한 책임은행원칙 서명기관으로 가입.
- UN PRB 는 파리 기후협정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을 위한 금융 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며, 책임은행원칙 서명에는 전세계 130 여개 글로벌 금융사가 참여.
- 이번 출범식에서 책임은행 원칙에 참여한 기관들은 4 년 내에 ▲사회·환경·경제 영역에서의 은행 사업으로 인한 중대한 긍정·부정영향 분석 ▲긍정·부정영향과 관련한 중장기 목표 설정과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보고와 자가진단을 통한 공시·검증으로 구성된 3 단계 이행요건을 완료해야 함.

2. SKT, 국제 정상회의에서 'AI 돌봄 서비스' 등 소개



- SK 텔레콤이 UN 총회를 계기로 한국과 덴마크, P4G 등이 뉴욕에서 공동 주최한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실천'(Winning Together : Sustainability in Action) 행사에 참석해 '행복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등을 설명함.
-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국가 정상 및 민·관 연합체로 우리나라와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칠레, 콜롬비아, 케냐 등 9 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 자리에는 우리측 정부 관계자와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를 비롯한 9 개국 정부 관계자들과 글로벌 투자자 등 약 350 여명이 참석하여 SK 텔레콤이 추진하고 있는 ICT 기반의 '행복 커뮤니티'에 관심을 표시.
- 유용환 SK 텔레콤 SV 이노베이션센터장은 "이번 국제 정상급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9 개국 정상급 민관 리더들에게 ICT 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전파하고, 글로벌 협력과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3. 제주개발공사,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사회적 책임경영 앞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 제주도개발공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다고 18 일 밝힘.
- 공사는 이번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에 따라 인권과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 등 4 대 분야 10 대 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기업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매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함.
-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지지·준수하겠다는 인권경영헌장을 발표함.
- 또한, 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윤리 헌장을 발표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 등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CSR 뉴스

1. 文대통령 "녹색성장 경험 공유해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지원"



- 문재인 대통령이 23 일 허드슨 야드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준비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P4G 와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연계해 개도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문 대통령은 준비행사에 앞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내년 2 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알리고, '참여와 확대'라는 P4G 의 기본정신을 더욱 발전시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힘.
- 문 대통령은 내년 2 차 P4G 정상회의와 관련, "물, 식량·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의 5 개 분야별로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해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면서 "'코펜하겐 행동선언'을 심화·발전시키겠다"고 말함.
- 이날 P4G 정상회의 준비행사는 1 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인 덴마크와 한국 정부가 함께 주최했으며 행사에는 지난 6 월에 취임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참석함.

2. "韓 기업, SDGs 기반 비즈니스 전략 채택해야"... 장 다라공 UNOSD 원장



- 18 일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뉴데일리경제와 칸 라이언즈가 주최한 SDGs 포럼 개최.
-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장 다라공(Jean D'Aragon)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원장은 "SDGs 중 기아해소와 산업 혁신 및 사회기반시설,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등 기업과 브랜드 간 밀접한 의제가 많다"며 "UN 이 주창한 SDGs 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정부와 시민, 기업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함.
- 그는 "현재 SDGs 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특정 의제에 치우쳐 있다"며 "각 기업들이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고심해야 한다"고 밝히며 "모든 CSR 활동은 SDGs 에 기여하며 이런 활동은 효율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기업들은 SDGs 를 CSR 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조직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 이어 "현재 기업들의 동참을 장려하고 국제사회윤리와 국제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글로벌 1 만 3661 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은 8 월 기준 248 개 기업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며 "더 많은 기업들이 SDGs 를 기반한 비즈니스 전략을 채택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3. 올 ESG 채권 발행, 지난 10년치 넘었다

증권

올 ESG 채권 발행, 지난 10년치 넘었다

9월 26일까지 발행량 10조 육박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대세화

- 국내 ESG 채권 발행이 확대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사회적 요구와 함께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제도화로 ESG 채권 투자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음.
- 지난해 국내 ESG 채권 발행금액은 5 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지난 26 일까지 발행된 규모만 10 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됨.
- 한광열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선호가 높았던 외화 표시 채권 위주로 ESG 가 발행됐지만 지난해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원화채 발행이 늘고 있다”면서 “발행 주체 역시 정부에서 카드사까지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함.
- 황우경 한국거래소 인덱스사업부장은 “올해 ESG 채권 발행금액이 앞선 10 여년 간의 발행 금액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크다” 며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 등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커진 영향” 이라고 분석함.
- 지금까지는 ESG 채권 금리가 일반 채권과 유사한데다 인증 및 공시 관련한 비용부담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 발행 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9 월 16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9 월 16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5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해비타트
- 현대모비스
- 한국석유공사
- LH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learn more)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1/4, 2/4, 3/4 분기, 4/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4/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안산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사회보장정보원, 카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건설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오도, 비엘에치아쿠아텍, 제주관광공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한국도자재단, 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3/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CJ 제일제당, 인천국제공항공사, 코웨이,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서스틴베스트, 나인, 인피니티컨설팅, 델타이엔씨, 더씨에스알, 아로마티카, 원광대학교, 한국국제봉사기구(사), 유엔한국협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충북대학교

<4/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현대모비스, LG 디스플레이,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LG 생활건강, SK 주식회사, DGB 금융지주,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건설, 티비에이치글로벌, 삼덕통상(주), 울산항만공사, 스완커뮤니케이션, 씨엔커뮤니케이션, (주)에프엠비디, 세일인터내셔널, 아진트랜스,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한국인권재단, 베타니아복지재단, 진해장애인복지관, (재)동천,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푸른나무청예단,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아시아정당국제회의사무국,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